

넷플릭스 예능물 ‘좀비버스’ 절반의 성공 “대본 없었지만...”

세계 넷플릭스 10위...반응 극과극 리얼리티 아닌 코미디 버라이어티 “상황만 봤을뿐...캐릭터 설정 NO” “그맛 알면 재미...가볍게 즐기길”

넷플릭스 예능물 ‘좀비버스’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8월 공개 후 이틀 만에 세계 넷플릭스 TV쇼 10위에 올랐지만, 극과 극으로 반응이 갈렸다. 박진경 CP 스스로도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평점이 낮은 한국 예능물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K-좀비를 버라이어티에 버무렸는데, 다소 작위적이라는 대본설이 제기된 상황이다. 좀비버스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코미디 버라이어티’라고 강조했다. 출연자에게 상황은 던져줬지만 “대본은 없었다”며 “캐릭터 설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미있다”부터 ‘이런 쓰레기가 다 있느냐’까지 평이 나뉘더라. 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찍히는 걸 보니 한국 예능이 익숙한 아시아권에는 그나마 어필이 된 것 같다. 리얼리티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사실 피드백이 없는 게 더 슬프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격렬하고, 인터넷상에선 지금도 싸우고 있더라. 국내 리얼리티도 기본적인 구성은 다 있다. 우리도 2회 첫 시작할 때 ‘너희는 차 사고가 났으니 얼떨떨 있어’라고 상황을 던져줬지만, 이후 깨어나서 하는 모든 행동, 대사는 애드리브다.”

좀비버스는 어느 날 갑자기 좀비 세계로 변한 서울 일대에서 퀘스트를 수행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콘셉트다. 카카오펀트 소속인 박진경 CP·문상돈 PD가 만들었다. MC 노홍철과 개그우먼 박나래, 래퍼 댄딘, UDT 출신 유튜버 텍스, 비노기와 전문의 파주형(홍

성우), 콩고 출신 조나단·파트리샤 남매, 배우 이시영, 그룹 ‘빌리’ 츠키, 전 야구선수 유희관 등 총 10명이 출연했다. 유희관이 첫 번째로 탈락하자 ‘다 짜고 치는 거다’ ‘죽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며 “나래씨가 (심자인데 파열로) 다리가 아파서 가장 먼저 좀비에 물리지 않을까 싶었다. 유희관씨는 전직 운동선수라서 피지컬적인 걸 보여주려고 썼는데, 넘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름대로 새로운 느낌의 예능을 하고 싶었다. 기존 예능 스타일대로 촬영하되 포장 자체는 극의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 이전에 TV 예능을 즐겨보고 커뮤니티에 감상평을 올리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타깃이 좀 더 넓지 않느냐. 커뮤니티도 잘 모르고 스마트폰을 썼는데 ‘좀비버스 땀내?’ 하고 보는 대중들에게 좀 더 집중했다. 대본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카메라가 제대로 잡은 적이 없다. ‘홍철 형, ‘무한도전’ 사기꾼 이미지 벗어보자’고 해도 정의를 할 수 없다. 보는 분들은 40~50분이지만, 하루종일 촬영해 실제 성격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텍스 활약이 돋보였지만, 캐스팅이 신선하지는 않았다. 노홍철과 박나래, 댄딘은 기존 예능물에서 보여준 캐릭터가 고정돼 좀비버스 속 역할도 예상했다. 텍스와 파주형, 조나

단·파트리샤 역시 유튜브, OTT 등을 넘나들며 활동해 익숙한 얼굴이다. 박 CP는 “1년 전 촬영했을 때는 신선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 마지막 촬영이 12월1일에 끝났다. 그때만 해도 파트리샤가 뜨기 전이었고, 텍스도 ‘솔로지옥2’ 방영 전이었다”며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한데, 프로그램으로 보면 ‘누가 나 온대~’라는 영향도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텍스씨가 많이 올라왔다”고 웃었다.

마지막 8회에서 텍스가 이시영과 파트리샤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인상적이었다. “텍스가 잘나의 순간에 들어가서 ‘큰일 났다’ 싶었다. 사실 CG로 지웠지만, 안전요원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텍스가 츠키를 구한 순간이 가장 짜릿했다. 팀 분란을 일으키려고 만든 퀘스트였고, 무조건 한 명 죽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누구도 텍스가 밧줄을 타고 내려갈 줄은 몰랐다. ‘UDT라서 체력 테스트 때 (밧줄 타고) 7~8m 왕복한다’고 하더라. 좀비 연기자들도 ‘내려오면 물어 뜯자’며 신호를 기다렸는데, 텍스가 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니 ‘이게 무슨 일?’이라며 놀라더라”고 했다.

그동안 박 CP는 MBC TV ‘미리미리 텔레비전’ 시즌1·2(2015·2017·2019·2010), ‘두니야~ 처음 만난 세계(2018)’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두니아는 좀비버스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가상의 세계 두니아를 배경으로 극적인 설정을 뒀지만, 시청률은 1~3%대로 저조했다. “두니아는 ‘지상파에서 할 수 있는 이상의 것만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다. 두니아를 토대로 하기보다, 안 통한 건 과감하게 내쳤다”며 “두니아는 완전한 대본이 있었다. ‘예능인한테 합부로 연기를 시키는 건 모험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기본적으로 웃음을 주는 코드는 달아있다. 심각한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꺾구 대머



웃는 걸 좋아한다. 조나단이 좀비에 물려서 고동소리 위 하는데, 댄딘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파트리샤도 ‘피가 잔뜩 묻어서 가까이 가기 싫다’고 하지 않느냐. 출연자들은 대사한 줄 없었다. 대신 보여지는 것보다 엄청난 준비를 했다. 좀비를 위한 대본이 있고, 상황을 주는 것도 대본이었던 대본이다. 그 외 출연자 10명은 애드리브로 했다. 그럼에도 대본이 있다고 느껴졌다면, 다음에는 덜 작위적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하겠다.”

K-좀비 예능물은 드라마·영화에 비해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2019~2021)와 영화 ‘부산행’(2020) 등 K-좀비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기술력이 쌓인 상태다. 좀비버스 속 좀비 분장한 이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만, 중간 중간 출연자들이 연기하는 듯한 느낌은 지을 수 없었다. 초반에 보다가 멈춰거나, 아직 좀비버스를 시청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문 PD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제작진 잘못”이라

며 “난 ‘더 진지하게 가져’고 했는데, 선배 의견을 따라가니 그 맛이 있더라. 그 맛을 알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질었다. “약간 개연성을 따지고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차라리 술을 한 잔 마시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첫 공개 됐을 때 불호가 엄청 됐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넷플릭스 각성하라’고 하더라. 조금씩 뒤쪽 회차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느끼면서 불호와 호가 반반 정도 됐다. ‘뇌를 저쪽에 빼놓고 보면 된다’는 글이 있더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재미있다’며 몰입하는데, 방송 관계자들은 ‘거기까지 대본이었지?’라고 하더라. 요즘 어떤 콘텐츠가 나오든 출연자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건방지게 새로운 장르라고 했지만, 좀비버스는 그냥 코미디다. 밈상 짓을 해도 코미디로 나오게 연출했고, 기본적으로 웃웃라고 만들었다. 좀비가 나오니 여름철 재미있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길 바란다.”(박진경)

아이유, ‘주경기장 오렌지빛 물들인’ 콘서트 내달 극장서 본다

데뷔 15주년 기념 공연 실황 영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의 첫 공연 실황 영화가 극장에 걸린다.

16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맞아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 아워’가 내달 극장에서 개봉한다. 지난해 9월 17~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에서 열린 아이유의 콘서트 ‘더 골든 아워(The Golden Hour)’의 오렌지 태양 아래를 극장 버전으로 제작한 영화다.

아이유가 한국 여자 가수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 입성해 이틀간 약 8만 명을 모은 콘서트는 화려한 연출과 의미가 담긴 서사로 호

평을 들었다.

특히 오프닝 장면은 역대 올림픽주경기장 콘서트 어떤 공연보다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 추 ♪ ♪”라는 ‘에잇’ 노래말이 아이유 목소리만으로 울려 퍼졌고 때마침 하늘도 군데군데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그 오렌지빛 태양이 ‘필레트’가 돼 지붕이 뚫린 올림픽주경기장 안으로 붓질한 것처럼, 아이유 팬덤 ‘유애나’가 들고 있는 응원봉 ‘이이크’ 역시 황금빛으로 번졌다.

거대한 건축물과 환경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간대의 특성을 활용해 자신의 공연 안으로 수렴하는 근사하고 겸손한 연출이었다.

이번 영화에는 ‘에잇’, ‘셀러브리티(Celebrity)’,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 ‘발렌지’, ‘너랑 나’ 등 아이유 히트곡부터 ‘필레트’, ‘좋은 날’처럼 앞으로 콘서트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콘서트 졸업 곡들까지 총 스물다섯 곡이 가득 담겼다.

여기에 콘서트 당시에 큰 화제를 모은 초대형 스트로베리 문 열기구와 화려한 드론 쇼,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 연출 역시 고스란히 담겼다.

제미나이, 신곡 ‘업 레이트’ 오늘 발매



싱어송라이터 제미나이가 신곡을 발표했다. 16일 소속사 앳에어리어에 따르면, 제미나

이는 17일 낮 12시 새 EP의 선공개곡 업 레이트(Up Late)를 발매한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EP ‘스틸 블루(Still Blue)’ 이후 8개월 만이자 소속사 앳에어리어를 이끄는 그루비롭과 함께한 컬래버 싱글 ‘렛 미 리브 유(Let Me Leave You)’ 이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곡이다.

앳에어리어는 정식 발매에 앞서 ‘업 레이트’ 음원과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리릭비디오를 먼저 공개했다. 창밖에 비친 도시의 쓸쓸한 야경과 이를 바라보며 상의를 탈의한 채 노래하는 제미나이의 섹시한 매력에 눈길을 끌었다.

“널 좋아한다는 말이 / 차를타고어 목까지 / 난 노리고 있어 타이밍 / 그다음엔 그다음엔 / 시간이 가도록 내버려둬” 등의 가사는 제미나이의 감미로운 음색과 조화를 이루며 곡의 애절한 감성을 한껏 고조시켰다.

성훈·정유민, 로맨스 복수극... ‘완벽한 결혼의 정석’

오는 10월 MBN 첫 방송

배우 성훈과 정유민이 로맨스 복수극에서 만난다.

MBN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남편과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약결혼을 선택한 ‘한이주’(정유민)와 그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계약결혼을 연기하는 ‘서도국’(성훈) 이야기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도국은 인테리여 플랫폼 회사 대표이자 태자그룹 창업주 손자다. 지나친 사담도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다. 이주의 복수에 기꺼이 이용 당하고 싶다면 절절한 순정을 보여준다. 이주는 한울금융그룹 ‘한진웅

회장의 입양된 딸이자 화가다. 회귀 후 남편과 가족에게 배신 당한 과거를 바꾸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운명을 개척한다.

강진호와 이민영도 힘을 신는다. 강진호는 태자건설 부사장이자 도국의 이복형 ‘서정욱’이다. 기업 후계자 자리를 위해 가식적인 가면 을 쓴 채 아버지의 동정심과 도국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이민영은 한울금융그룹 임원이자 갤러리 더한 대표 ‘이정혜’로 분한다. 억지로 이주를 입양해 눈엣가시로 여기고, 친딸인 ‘한유라’(진지희)에게 헌신한다. 유라는 SNS 스타이자 갤러리 더한 수석 갤러리스트다. 속으로 소위 ‘금’을 나누며 모든 것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10월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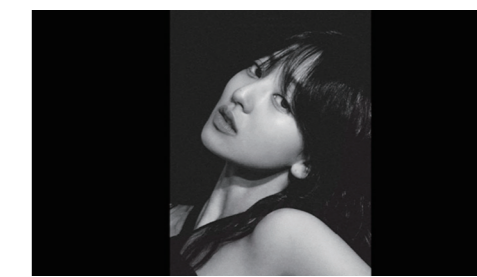
트와이스 지효, 하이ไลท์ 음원 공개

첫 솔로 앨범 ‘존(ZONE)’의 두 번째 하이ไลท์ 메들리

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첫 솔로 앨범 ‘존(ZONE)’의 두 번째 하이ไลท์ 메들리를 공개했다.

지효는 오는 18일 솔로 데뷔 앨범 ‘존’과 타이틀곡 ‘킬링 미 굿(Killin' Me Good)’을 발매하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다.

앞서 타이메이블을 통해 총 두 차례에 걸친 하라메 콘서트 ‘앨범 스니크 피크’(Album Sneak Peek)를 예고했고 글로벌 K팝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지난 11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채널에 지효가 신보 전국 일부를 직접 가창한 스니크 피크 라이브 버전에서 특유의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며 열렬한 반응이 이끌었다. 16일 0시에는 새 앨범을 하이ไลท์ 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두 번째 스니크 피크 영상을 게재했다. 타이틀곡 ‘킬링 미 굿’을 포함 ‘토크 어바웃 잇(Talkin' About It)’(Feat. 24kGoldn), ‘클로저(Closer)’, ‘위싱 온 유(Wishing On You)’, ‘돈 워너 고 백(Don't Wanna Go Back)’(Duet with 헤이즈), ‘룸(Room)’, ‘나이트메어(Nightmare)’까지 총 7곡



의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 ‘10초마다 생각아 나’, ‘랜 위 겿 이븐 클로저(Can we get even closer)’, ‘캔트 이스케이프 아이 유 나이트메어(CAN'T ESCAPE I'M YOUR NIGHTMARE)’ 등 노랫말 문구가 영상에 덧입혀져 감상하는 재미를 높였다. 타이틀곡 ‘킬링 미 굿’은 리드미컬하고 그루비한 사운드 위 지효의 음색이 도드라진 곡이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했고 멜라니 폰타나(Melanie Fontana), 린드그렌(Lindgren), 몬스터즈 앤 스트레인저스 작가 마르쿠스 로맥스(Marcus Lomax) 등 유수 작곡진이 합세했다.